

내용-적절치않은

여러분은 국어를 풀 때 발문을 유심히 보시나요? 발문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의 유형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동영역과 행동 환경, 난이도 조절방식 그리고 그에 맞는 풀이법까지 담겨있습니다.

믿기시지 않죠?
그냥 가장 적절한거랑 적절치 않은 거 두 개 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지금 대부분일겁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개가 다예요. 그런데 이 두 발문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는 선지를 분석해볼게요.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는 선지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5개의 선지 중 4개가 적절한 선지고 1개가 적절치 않은 선지일겁니다.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적절한선지 | 적절한선지 | 적절한선지 | 적절한선지 | 적절치 않은 선지 |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만약 4개의 적절한 선지가 다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면 어떨까요? 선지 판단이 너무 쉽겠죠. 1번을 판단하고 내려갔는데 그 밑에 똑같은 혹은 비슷한 내용의 선지가 있으면 판단이 너무 쉬울겁니다.

그렇습니다. 4개의 적절한 선지는 모두 다르진 않더라도 어느정도 서로 다른 정보로 구성되어야문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시에선 모든 표현들이 시의 주제성을 드러내기 위해 쓰이니 아마 시의 내용을 뽑아 선지를 만든다면 글의 주제성과 밀접한, 겹치는 선지들이 존재할 겁니다.

우린 벌써 발문을 통해 선지의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선지의 대부분이 글의 주제성과 겹치는 선지일테고 되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는 선지라는걸요.

다음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겠죠! 우선 글을 읽을 땐 별다르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이다 보니 선지를 먼저 보지 않은 이상 해당 표현에서 무엇을 물어볼 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니깐요.

대신 글을 다 읽고 나서 1번선지를 보자마자 지문으로 돌아가 비교하고 지워내는 게 아니라 선지를 훑어보고 글의 주제성과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적절치 않을 확률이 아주 높은 선지 위주로 먼저 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예 걸러내자는 것이 아닌 선지의 순서만 조정하지는 겁니다. 선지의 구조가 글의 주제성과 겹치는 선지가 많을 테니 글의 주제성과 상관없거나 가장 멀리 떨어진 선지 위주로 먼저 판단해서 정답 선지를 먼저 볼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 답이 먼저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선지를 아낄 수 있겠죠! 다음장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핵심 정리

1. 선지의 대부분은 글의 주제성과 겹치는 지문의 서로 다른 내용이다.
2. 선지의 대부분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는 선지다.
3. 난이도는 겹치는 선지를 최소화하며 어렵게 조정한다.
4. 글의 주제성과 떨어진 선지 위주로 먼저 판단해 판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읍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노

㉡ 햇발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릇이라
㉢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
갑갑의 낮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 김영랑, 청명 -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짙짙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 아무려면 어쩐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도 청명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실는 날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낮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청명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2020 9월의 현대시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셨나요? 여전히 1번부터 선지와 지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푸셨나요? 보기에서 말하는 글의 주제는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계입니다.

(가)에 대한 선지만 볼까요? 1번과 2번의 느낌이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연의 가치라는 보기의 주제성과 딱 들어맞죠? 산뜻한 가을아침이라던지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이라던지 전부 자연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글의 주제성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나 3번은 어떤가요? 글의 주제성과 관련 없는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죠? 그렇다면 저는 12번보단 3번을 먼저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볼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번이 정답이었던데요.

(나) 선지는 어떤가요?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거나 청명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글의 주제성과 아주 밀접하죠.

해당 문제는 조금은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선지가 글의 주제성과 겹쳐 이렇게 선지 내에서 정답 유력 후보를 바로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하나 더 보볼까요?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2022 6월에 나온 현대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떤가요?

앞에 나왔던 문제랑은 좀 차이가 날겁니다. 글의 주제가 각각 축적된 인생경험과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가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뭐 1번이나 3번이야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보기에 나온 삶을 성찰하는 경우나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때문에 글의 주제와 가깝다고 하지만 2번선지의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이나 4번선지의 긍정적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은 쉽사리 글의 주제와 연결시키긴 힘들어보입니다.

이게 난이도를 어렵게 조정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선지의 사실 부분으로 먼저 판단해보고 안되면 사실의 주변부로 넘어가서 일관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대로 판단하면 쉽게 풀리니까요.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시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시가 이해가 아예 안되는 시라면 이렇게 선지가 겹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운대로 1번과 3번을 제끼고 245순서대로 일관적 판단체계를 거쳐 판단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아래에 기출 교재 타임머신의 해설을 달아놓겠습니다.

타임머신 해설

1번선지해설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지문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지문에서 봤던 핀트가 기억이 난다면 바로 체크해도 좋지만 선지에 적극적인 태도는 있지만 이게 삶에 대한 것인지 다른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모르니 사실의 주변부로 가야 한다. 사실의 주변부에 '살리라'라는 표현으로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킨다.

2번선지해설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대조는 한 쪽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하나씩은 개별적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선지만으로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다.

3번선지해설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지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1번과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다면 바로 풀어도 되지만 안보인다면 일관적인 판단 체계를 가져가야 한다. 사실의 주변부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라는 표현이 있으니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4번선지해설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지문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⑦ 사실의 주변부에 피려던 뜻이 '굳어'라는 표현으로 선지의 주관인 부정적 정서가 표현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선지의 사실 부분인 '날로'에서 지속적인 심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지문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⑧ 사실의 주변부에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선지의 주관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5번선지해설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지문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⑨ '또한'이라는 표현이 동질성을 드러내기 하지만 이게 긍정적 존재와의 동질성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사실의 주변부로 가보자. 또한은 '불꽃'과 연결된 표현이고 불꽃은 지문에서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기에 긍정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한 선지다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지문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⑩ 선지의 사실부분만론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사실의 주변부로 가면 '~처럼 느껴질때'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선지의 주관인 차별성과 반대되는 표현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치 않은 선지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다.

(가)

별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좃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걸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 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 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별목정정 :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쨍쨍하고 나는 큰 소리.
* 올연히 : 홀로 우뚝한 모양.

<보기>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2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좃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올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어렵게 나오면 정말 그 시험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한 문제만 더 봐볼게요. 2023 3월의 28번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 전체 1등이었고 이 문제 때문에 등급컷이 낮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대부분의 선지가 그냥 언뜻 봤을 때 글의 주제성으로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 자체도 너무 어렵다 보니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가 없이 감상 위주로 접근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잡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기의 주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당화시키고 일관적 판단의 체계를 통해 문제에 접근했다면 의외로 깔끔하게 풀렸을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겸 자세하게 해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

보기에 나온 글의 주제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먼저 봐야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시의 내용을 감상하는 형태로만 문제를 풀기엔 시의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을겁니다. 우선 배운대로 선지의 사실 부분으로 선지의 주관이 정당화되는지 봐볼게요.

①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선지의 사실에는 인간에게 뭘 내어준다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핀트가 없습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것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도 모두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우린 사실의 주변으로 가야 합니다.

지문

별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아름드리 큰 솔이/베어짐직도 하이/골이 울어/멩아리 소리 찌르렁/돌아옴직도 하이/

사실의 주변부엔 그 어디에도 '인간'을 드러내는 단어도 '아낌없이 내어주는'을 표현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선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EBS 해설

2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한 것은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이 환기된 것은 아니다.

EBS의 해설입니다. 대부분의 해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문에서 의도된 표현은 이런 거였는데 선지는 이걸 나타내는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에서 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일관적인 판단의 체계를 통해 사실의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거나 반대되는 단어가 있을 때 적절치 않은 선지구나!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선지 2

이 선지는 조금 글의 주제성과 가까워보이죠? 글의 주제가 고요이니 적막한 분위기라는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매우 가까워보이네요. 이런 선지는 주변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봤을 때 적절치 않을 확률도 있지만 적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으니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해설이니까 제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선지의 사실 부분에 다람쥐도 없고 멧새도 울지 않는다고 하니 돌아다니는 다람쥐도 소리도 들리지않는 다는게 바로 선지의 주관인 적막한 분위기를 정당화시키네요 선지만 보고도 바로 지워지는 선지입니다.



Q. 다람쥐가 쫓지 않고랑 새가 울지 않는게 왜 적막한 분위기인가요?

글의 주제가 고요이니 지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고요를 드러내기 위해 쓰인겁니다. 만약 이런 주제성이 없다면 다람쥐가 쫓지 않는다는게 뭐 다른 여러 이유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거죠. 그러나 글의 주제성이 고요인 이상 무조건 고요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 3

이게 가장 어려운 선지이기도 하고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난이도 조절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내용에 관한 문제다보니 일관적 판단 체계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시켜야 하는데 주관에 쓰인 표현의 의미를 학생들이 잘 모를만한 단어로 주면 굉장히 판단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세속적인이라는 말을 다들 느낌은 알죠. 그런데 정확한 뜻이나 판단기준을 아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세속적인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지를 정당화해보면 어떤 내기에서 졌는데 웃는다는 건 세상의 풍속과 맞지 않죠. 그러니 3번선지는 선지 자체로 정당화되는 선지인겁니다.

이 선지 역시 글의 주제성으로 바로 걸러내긴 힘드네요. 이러니 난이도가 높은겁니다.

선지 4

여기서 중요한 행동영역이 나옵니다. 시에 나온 표현들은 보기의 주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하고 연결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흔들리우노니'라는 사실부분을 보고 이게 뭐 바람이 흔들리는 건지 뭐 내면이 흔들리는건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서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면세계도 암시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러니 바람도 일지 않는 이라던지 심히 흔들리우니는 화자의 내면이 흔들리는걸 암시해야합니다. 그러니 선지 자체에서 선지의 주관을 바로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만 보고 지워지네요.

해당 선지도 글의 주제성과 바로 매치시키긴 어렵지만 능숙하면 바로 매치시켜서 적절할 확률이 높으니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 5

아예 글의 주제랑 매치되지가 않죠? 4번처럼 판단해볼게요. 시에서 나온 표현은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해야 하니 견디겠다는 사실 부분의 표현도 당연히 화자의 내면 세계의 말이어야 하고 화자의 내면이 견디겠다!라는 의지표현이니 당연히 선지의 주관인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정당화되겠죠!

이렇게 대놓고 선지의 사실부분으로 정당화되진 않지만 보기랑 연결해서 정당화시키면 쉽게 보이는 선지 유형으로도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내용-적절치 않음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발문하나에 담긴 의미가 정말 많죠? 보다 보면 이렇게 낼 수 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무기를 얻었습니다. 거의 매번 나오는 이 유형에서 어렵게 나와도 대비가 될 것이며 일반적인 문제는 정답 선지만 보고 바로 답으로 찍어버리겠네요.